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2024년 서울교회 재물조사 실시

오늘 2부 예배 후 설명회, 본당

관리위원회(위원장:김승록 장로)에서는 교회 내 각 실에 많은 가구와 장비 등 집기류를 위원회 및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목록 대장이 없어서 관리 등의 어려움과 이중 구입 등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재물조사를 실시하려고, 지난 4월 정기당회에서 재물조사 실시 의안을 상정하여 통과하였습니다.

부서에서 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재물 대장 양식에 따라 조사하여 관리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제출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오후 1시에 2층 본당에서 재물조사 관련하여 설명하고, 5월 12일(주일)까지 2주 정도 실시할 예정이며, 각 실의 조사를 진행할 위원회와 부서장의 많은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물조사 방법은 주로 사용하는 위원회 및

## 교인 사진 촬영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기

5월 5일(주일)- 5월 31일(금), 703호

지난 4월 17일(수)에 열린 정기당회에서 코로나 등으로 미뤄왔던 "교인 사진 촬영"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받기"를 결의하였습니다.

사진 촬영은 교적 사진이 10년 이상 오래된 사진이 게재되어 최신 사진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가방침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교회도 개인 동의하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 위한 성도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문하여 사진 촬영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및 다락방은 최신 사진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교구 및 다락방장님은 모든 성도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사무국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울교회 사무국 (02-558-11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주일)부터 31일(금)까지 703호를

## 2024년 선교위원회 선교사 기도팀

선교지	선교사	팀장	팀원	일시, 장소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조남혜	제오복	노인숙 이관모 이봉선 오용이 신정순
		이경엽-송은옥		
	인도	우상식-김정옥	백승경	김복희 주화인 심화숙 김혜영 문분순
		조범연-김희정		
서남아시아	***	***	홍정란	김정희 김양희 김인아 남영주 박미혜 주해민
중앙아시아	러시아	김영호-서향정	김정제	정복순 옥희숙 서정현 박찬희 박만옥
	카자흐스탄	이은준-강혜정	최복희	권소희 박혜정 최종금 박민숙 김정민

\*\*\* 서남아시아는 선교사님의 신변을 위해 비공개합니다.

### 주일 2부 예배 봉헌부 모집

주일 2부 봉헌부에서 봉사하실 성도를 찾습니다.  
· 문의:사무국 558-1106

### 섬김위원 추가

\*관리위원회  
식당 봉사:유남식 안수집사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기도가 먼저라!

###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 2024년 4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4월 21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24년 두 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 달(격월) 셋째 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사전교육 및 신청 절차는 새가족 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세례자:임원준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행 13:23



손달익 위임목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성취를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행 13:2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일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시어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의 구약의 인물들이 또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8),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합 2:14).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신앙이 없으면 그 위에 축적되는 모든 것은 마치 바벨탑과 같은 것이어서 결국은 자신과 세상에 해가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바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도 국가도 온 세상도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 1. 저항의 극복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언제나 반대와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어도 세 차례의 심각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공생애 시작 직전 기도하시는 주님을 찾아온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둘째는 십자가를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를 통해 다가온 저항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내면에 찾아온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저항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던 바울에게도 장애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 일행이 겪은 첫 전도여행의 과정입니다. 우선 그들은 헬라문명과 토속종교들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와 저항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부적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버가에 도착했더니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왔고 전도대에 합류하여 출발했었는데 고향의 사도들을 남기고 젊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내부의 심각한 갈등 양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행 15:36이하에 의하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의 동행을 주장하자 바울은 결사반대하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됩니다. 이럴 만큼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가 버린 일은 내부적으로 큰 갈등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팀이 치명적 분열 양상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전도팀의 지도자인 바울이 병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든지에 관계없이 지도자는 상황을 극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상대함에 있어 육체의 혈기로 하지 않고 영적인 대응을 했습니다.(엡 6:12)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행하려 할 때 여러 모양의 반대와 저항 그리고 시련과 역경이 생

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모든 일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미워하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 2. 순전한 복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의 유대인 회당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 전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매우 탁월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긴 분량의 설교의 핵심은 매우 분명합니다. 바울은 구약 역사의 결론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며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뿐입니다. 이 진리에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십자가의 은혜만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매우 단

순하지만 순전한 복음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전한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이 복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만약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숭고한 지점은 타인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있습니다. 본 회퍼 목사는 이를 일컬어 '타자 지향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삶이어야 신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결코 신앙인의 삶은 이기심의 충족을 축복으로 생각하거나 값싼 위로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 3.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예수'라는 순수 복음의 본질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 하셨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안디옥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또 듣기 원했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습니다.(행 13:48)

당시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름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고후 7:5).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루시고 싶은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는 각자 다양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저항하는 악한 세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 2강: 전체 구조와 서문에 해당되는 전제

### - 전체 구조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2부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3부는 우리의 감사함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3부에 걸쳐 전체 129개의 문답이 담겨 있는데, 129개의 문답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점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지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1부, 2부, 3부의 내용과는 별도로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제1부가 3문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주목하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1부가 시작되기 전, 앞에 놓여있는 1문과

2문은 전제에 해당됩니다. 전제라고 하면 어떤 내용을 전개해 나가기 전에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인 동시에 토대가 되는 내용으로서, 이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들 또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제란 반드시 해결하고 통과해야 할 입국심사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1문과 2문은 전제, 3문부터 11문까지는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12문부터 85문까지는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86문부터

129문까지는 우리의 감사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29개의 문답을 1년에 걸쳐 다 배울 수 있도록 52개로 나누어 내용에 따라 한 주에 2-3개의 문답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사도신경과, 10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전개해 나가기에 앞서 전제로 삼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9개의 문답을 성공적으로 배우려면 전제가 확인되고 수용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에 해당되는 1문과 2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제1문: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로란 여러분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거나 격려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는 의미로 묻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의 의미로 묻는 것입니다. 달리 질문을 하면, 힘들 때 위로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하는 질문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죽을 것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깨달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돈이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위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옳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 곧 위안을 줍니다. 문제는 그 약속과 믿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약속과 믿음이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 약속과 믿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일종의 전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2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제2문: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힘들지 않으면 위로와 위안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위로와 위안 주시게 위해서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아닌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만족한 가운데서 있다면 위로와 위안이 필요가 없을까요? 만약, 병 없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병 없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덜 건강해도 좋으니까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돈이 없어서 너무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도 있고, 건강하다면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은 채 살아가면 허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허한 느낌을 사람들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여전히 만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는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아야 하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게 되고,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 만약 구원받았다고 하여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짐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 전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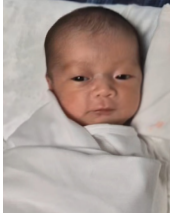
### - 정리 -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어린이 또는 젊은 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신앙이 바르게 정립될 뿐만 아니라, 목사나 교수들이 체계적인 신앙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되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작성한 하

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신앙교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간결성과 아름다운 문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구조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네바 교리문답이 373개의 문답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할 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그 절반도 되지 않는 129개로 되어 있습니다. 129개의 문답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 5교구  
 예완식 안수집사·송금자 권사 손녀  
 예상진 성도·전희진 성도 딸  
 예술희 아기 4월 5일 출생

성도 동정

NEW YORK  
**CHUN KWANG YOUNG**  
 MEMORIES, MESSAGES AND MEANINGS

MAY 2 - JUNE 1, 2024  
 OPENING RECEPTION  
 WITH THE ARTIST  
 THURSDAY, MAY 2, 6 - 8 PM

SUNDARAM TAGORE NEW YORK  
 542 WEST 26TH STREET, NEW YORK, NY 10001  
 212.677.4520 · GALLERY@SUNDARAMTAGORE.COM

sundaram tagore gallery

개인전

- 3교구  
 전광영 은퇴안수집사  
 선다람 타고르 갤러리,  
 뉴욕  
 'MEMORIES  
 MESSAGES AND  
 MEANINGS'  
 5월 2일 - 6월 1일,  
 개인전 참석차  
 4월 29일 출국

식사 제공



- 9교구  
 오윤걸 장로·김민아 집사 가정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하며)

70인전도대 4월·5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4.28	자원자	이삭	5.1	도르가, 루디아, 뵤뵤
5.5	어린이날	어린이날	5.8	마리아
5.12	자원자	바울, 엘리야	5.15	석가탄신일
5.19	자원자	모세	5.22	리브가, 에스더(오후 2시-3시)
5.26	자원자	이삭	5.29	권사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4월29일	월	왕하 15-17	민6	시40,41	아4	히4
4월30일	화	왕하 18-19	민7	시42,43	아5	히5
5월1일	수	왕하 20-22	민8	시44	아6	히6
5월2일	목	왕하 23-25	민9	시45	아7	히7
5월3일	금	대상 1-2	민10	시46,47	아8	히8
5월4일	토	대상 3-5	민11	시48	사1	히9
5월5일	주일	대상 6	민12,13	시49	사2	히10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순종과 헌신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 배어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70인전도대와 성도들의 전도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회복의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3. 십자가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크라이나, 중동을 비롯한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전세계 재난과 고난이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 전도사  
박미라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박지연
- ◇ 협동목사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